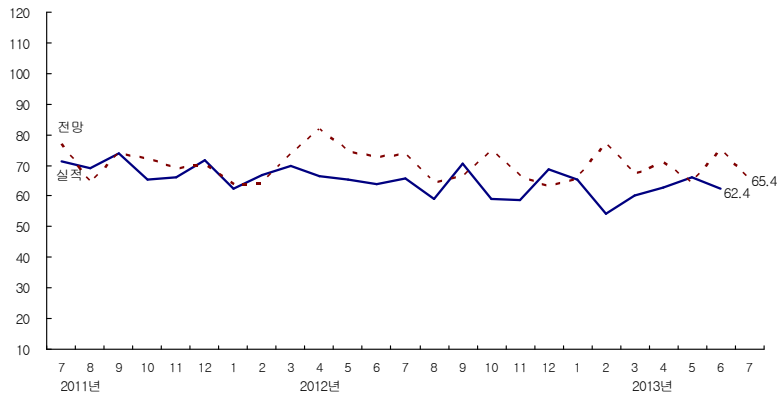


2013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6월 CBSI 3.7p 하락한 62.4 기록
4개월만에 하락

- 2013년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7p 하락한 62.4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2월에 30개월내 최저치(54.3)를 기록한 이후, 기저효과, 계절적 요인, 그리고 4.1대책 및 추경예산 발표 등에 힘입어 3~5월 동안 3개월 연속 상승했었음(3개월 동안 11.8p 상승).
 - 그러나, 6월 CBSI가 전월비 3.7p 하락함에 따라 CBSI는 그동안의 증가세를 멈추고 4개월만에 감소함. 또한, CBSI 수치는 2개월 전인 4월의 62.8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다시 하락함.
 - 이는 CBSI가 지난 3개월 연속 상승한데 따른 부담감과 더불어 4.1대책과 추경예산 발표 등이 더 이상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지는 못한 결과로 해석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특히 전월인 5월 조사시 6월 CBSI 전망치가 75.0이었으나, 실제 6월 CBSI 실적치는 이보다 12.6p나 못미친 62.4를 기록해 정부 대책들의 실제 건설업체 체감경기 개선효과는 건설업체들이 가졌던 기대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전월과 동일했으나,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3월 31개월만에 최저치(69.2)를 기록한 이후 4~5월 동안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6월 들어서는 전월과 동일한 78.6을 기록하며 체감경기의 개선이 멈춤.
 -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지수가 66.7에 머물렀었는데, 6월에는 전월비 2.4p 하락한 64.3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다시 악화됨.
 - 중소기업 지수는 지난 4월 이후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하며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6월에는 다시 전월비 9.7p나 하락한 41.2를 기록해 6월 CBSI하락을 주도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분	2012년					2013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적	전월 전망치	전망	
종합	59.0	70.6	58.9	58.7	68.9	65.4	54.3	60.3	62.8	66.1	62.4	75.0	65.4	
규모별	대형	80.0	91.7	76.9	78.6	92.9	85.7	72.7	69.2	71.4	78.6	78.6	85.7	85.7
	중견	46.2	61.5	57.7	55.6	64.0	66.7	48.0	66.7	66.7	66.7	64.3	73.1	63.0
	중소	49.1	56.4	39.3	38.9	46.3	40.0	40.0	42.6	48.1	50.9	41.2	64.7	44.2
지역별	서울	63.8	80.5	69.9	69.6	79.3	76.2	63.6	64.8	66.9	68.6	71.6	78.1	75.1
	지방	51.6	56.5	43.2	42.5	52.1	49.0	41.8	53.6	58.7	62.2	52.6	72.1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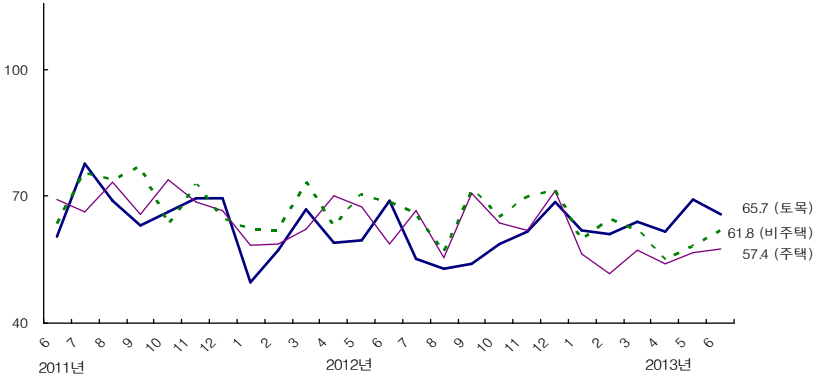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2013년 7월 CBSI 전망치는 6월 실적치 대비 3.0p 상승한 65.4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소폭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7월에는 건설경기 침체 수준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전망치 자체가 여전히 기준선에 훨씬 못 미친 60선 중반에 불과해 7월에도 여전히 건설경기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5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3.0p 상승한 71.6을, 반면 지방은 9.6p 하락한 52.6을 기록해 지방의 경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는 전월보다 3.0p 상승한 71.6으로 지난 2월 63.6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지수가 개선되었으며, 5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함.
 - 4.1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의 주택 및 비주택 물량 상황이 다소 개선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이나, 지난 2월부터 상승폭이 1~3p 수준에 그쳐 여전히 건설 경기회복은 더딘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방업체는 전월 대비 9.6p 급락하며 지난 3~5월 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감함. 지방의 경우 소규모 토목물량은 소폭 회복된데 반해 주택 물량 상황이 더욱 악화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한편, 2013년 7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6월보다 3.5p 소폭 증가한 75.1을, 반면 지방업체는 2.3p 하락한 50.3으로 전망해 향후 지방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7.0p 감소한 57.6 기록

- 2013년 6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0p 감소한 57.6을 기록해 지난 5월 64.6 기록 후 한달만에 다시 50선으로 하락함.
 - 물량지수는 올 2~4월까지 각각 59.6, 58.0, 59.7을 기록하면서 50선에 불과해 역대 최저 수준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4.1대책 발표 영향과 공공발주 일부 회복 및 기저효과 등의 효과로 지난 5월에 전월 대비 4.9p 증가한 64.6로 4개월 만에 60선을 회복함.
 - 그러나, 6월 들어 지수가 다시 7.0p 하락, 6월 지수로는 전체물량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57.6을 기록해 업체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57.4, 61.8로 지난 5월과 비슷한 수준 또는 약간 증가한 반면,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3.4p 하락한 65.7을 기록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3.4p 감소한 65.7을 기록함. 지난 5월 69.1을 기록해 70선을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6월 들어 다시 재 감소함. 이는 지난 4월과 5월 일부 대형 공공 토목공사 발주로 물량이 다소 증가한데 반해, 6월에는 전반적으로 공기업의 발주가 부진한 가운데, 대형공사 물

- 량이 다소 감소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9p 증가한 57.4를 기록, 지난 5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결국 지난 1~6월까지 6개월 연속 50선에 머물었는데 4.1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신규물량에 영향을 미칠만큼 영향력이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타공종에 비해 수치 자체가 낮아 여전히 주택 물량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3.6p 증가한 61.8로, 지난 3월 61.9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비록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어도, 여전히 60선 초반으로 비주택 물량 또한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중견업체가 전월 대비 1.3p 소폭 증가한데 반해 대형과 중소기업이 감소하였음. 특히, 대형업체가 전월 대비 14.3p 감소해 전체 물량지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4.3p 감소한 64.3으로 지난 2010년 61.5 이후 6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실적을 기록, 대형업체의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은 지난 5월과 동일한 수치인데 반해, 토목 물량이 전월 대비 7.2p 감소한 85.7로 6월 대형 토목공사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판단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57.6	64.3	64.3	42.3	61.3	56.5
	전망	60.3	78.6	53.8	46.2	63.4	54.9
토목	실적	65.7	85.7	55.6	53.8	68.7	65.0
	전망	64.5	85.7	53.8	51.9	67.6	59.4
주택	실적	57.4	71.4	63.0	34.8	63.4	48.2
	전망	54.2	57.1	57.7	46.7	52.1	57.6
비주택	실적	61.8	78.6	64.3	39.2	69.5	49.7
	전망	64.9	78.6	63.0	51.0	68.6	58.7

주 : 실적은 2013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7월 예측지수임.

- 중견업체의 경우는 전월 대비 1.3p 증가한 64.3을 기록함. 토목이 전월 대비 5.9p 감소한 55.6을 기록한데 반해, 주택과 비주택은 각각 전월 대비 11.0p,

- 6.6p 증가한 63.0, 64.3을 기록함. 공종별로 주택물량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 6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견업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단지 아파트 공급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7.7p 감소한 42.3을 기록함. 공종별로 주택이 전월 대비 9.4p 하락한 34.8로 가장 부진했으며, 토목과 비주택은 각각 3.8p, 4.4p 상승한 53.8, 39.2를 기록함.
- 지역별로 서울과 지방 업체가 각각 전월대비 7.3p, 1.6p 감소함. 서울은 토목 물량의 위축이, 지방은 주택 물량 감소가 두드러짐.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3p 감소한 61.3을 기록함.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 물량은 각각 전월 대비 6.9p 2.6p 상승한 63.4, 69.5를 각각 기록해 전월보다 지수가 개선된데 반해, 토목이 7.3p 하락한 68.7로 전체 물량지수 감소를 주도함.
 - 지방업체 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1.6p 감소한 56.5를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전월대비 6.9p, 5.6p 상승한 65.0, 49.7을 기록해 지수가 회복되었으나, 주택이 8.9p 하락한 48.2로 전체 지수 감소를 주도함.
- 2013년 7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6월 실적치보다 2.7p 상승한 60.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공종별로 토목과 주택이 6월보다 각각 1.2p, 3.2p 하락한 64.5, 5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6월보다 3.1p 증가한 64.9로 전망하였음.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7.4, 100.2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7.2, 86.6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2.6, 79.0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구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실적	82.6	85.7	85.7	75.5	81.7	85.8
		전망	90.3	107.1	85.2	76.5	93.7	86.6
	자금조달	실적	79.0	92.3	75.0	67.9	79.5	80.1
		전망	79.3	92.9	74.1	69.2	79.0	79.2
인력	수급	실적	97.4	100.0	107.1	83.3	107.0	82.7
		전망	97.2	100.0	103.7	86.5	105.2	85.0
	인건비	실적	87.2	100.0	89.3	69.8	96.1	73.4
		전망	89.2	100.0	92.6	72.5	99.1	74.0
자재	수급	실적	100.2	107.1	96.4	96.2	103.1	97.2
		전망	97.2	107.7	92.6	90.2	102.1	91.1
	비용	실적	86.6	100.0	96.4	59.6	96.2	73.6
		전망	85.6	100.0	92.6	60.8	94.1	74.6

주 : 실적은 2013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7월 예측지수임.